

키움도 베트남증권사 인수추진... 국내 '빅6' 호치민대첩

3분기 성장률 7.3% 목표치 훌쩍 미·중무역분쟁 수혜국 등 기대감 미래에셋대우, 600억원 유상증자 상반기 순익 81억... 전년비 76%▲

국내 주요 증권사가 베트남에서 격돌한다.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새로운 수익창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 신흥국 증시의 대표주자로 떠오른 베트남의 성장 가능성에 증권업계가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까지 베트남에 안착한 증권사는 총 6곳이다. 미래에셋대우가 지난 2007년 첫 발을 내딛은 이후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화투자증권이 잇따라 베트남 땅을 밟았다. 현지법인을 세운 미래에셋대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베트남 증권사를 인수해 거점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현지화 작업을 진행했다.

◆ 국내 증권사 베트남서 '진검승부' 키움증권도 베트남 현지 증권사 지분 인수를 추진한다.

〈증권사별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시기 및 인수사〉

증권사	설립시기	인수사
미래에셋대우	2007년	현지법인
NH투자증권	2009년	CVB증권
한국투자증권	2010년	EPS증권
신한금융투자	2015년	남안증권
KB증권	2017년	매리타임증권
한화투자증권	2019년	HFT증권

키움증권 관계자는 2일 "베트남 현지 모 증권사 지분 인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협상 중인 구체적인 증권사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알파증권이나 SJC증권 같은 중소형 증권사가 대상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 업계 추측이다. 지분 인수에 성공한다면 키움증권은 베트남 시장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베트남에 진출한 증권사 역시 베트남에서 영역을 넓혀나가기 위해 분투 중이다. 특히 KB증권은 '베트남 특화' 증권사를 자처했다. 올해만 두 차례 베트남 투자 세미나를 열었다. 원화

거래하는 자사 해외주식 매매 서비스에 베트남 시장을 추가오픈하고 리서치센터에 베트남 시장 자체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미 베트남 덕을 토틈 본 미래에셋대우는 지난달 현지법인인 미래에셋베트남에 1조1560억동(약 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다. 미래에셋베트남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늘었다. 늘어난 자본 규모를 바탕으로 투자은행(IB)와 자기자본투자(PI), 기업공개(IPO) 등 사업 범위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 베트남 '훈풍', 이유는? 베트남은 지난 3분기 성장률이 7.3%

로 정부 목표치를 훌쩍 넘었다. 여기에 미·중 무역분쟁 수혜국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데다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파격적인 통화정책까지 더해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와중 주식시장 상승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긍정적인 이슈가 많다. 베트남의 호치민거래소가 지난달 새로 3개 지수를 발표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에 외국인 투자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을만한 증권법과 기업법 개정도 앞두고 있다. 모건스탠리인터네셔널(MSCI) 신흥국(EM)지수 편입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내년까지 정부 지분 최대 30%까지 제3자에 매각하겠다는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 역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투자자에게 호재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베트남 주요 종목에 분산 투자할 것을 추천한다. 오현석 삼성증권리서치센터장은 "글로벌 시장이 흔들리거나 단기에 큰 이벤트가 존재할 경우 베트남 주요

종목과 관련 주가들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의 지역적 리스크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사업 확장을 부추길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홍콩을 둘러싼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홍콩법인 수익을 잠탈할 수 없다"며 "내부에서 현지법인의 영업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증권사의 해외 현지법인 이익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지난해 국내 증권사의 해외 점포 순익 현황은 홍콩(5760만달러), 베트남(1830만달러), 인도네시아(1770만달러)를 기록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홍콩에서의 업무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중개와 IB 부문을 넓혀 수익원을 다양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여러 이슈들이 진행되고 있다. 진행 속도에 따라 베트남의 추가적인 증시 상향 조정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증권 다이제스트

메리츠증권증권

12일 해외선물 투자세미나

메리츠증권증권은 강남금융센터가 오는 12일 오후 5시 강남금융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해외선물 투자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투자자들 사이에서 높은 거래 비중을 보이고 있는 주가지수선물 거래와 관련 '각 거래소별 대표 주가지수선물 상품소개' 및 '주가지수선물을 활용한 투자전략'을 다룰 예정이다. 강남금융센터 흥준서 센터장은 "고객들에게 생생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손엄지 기자



하이투자증권

100억 규모 ELS 모집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6일 오후 1시까지 주가연계증권(ELS)을 총 100억 원 규모로 공모한다. 'HI ELS 2019호'는 니케이(NIKKEI)225 지수, 홍콩항셱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톡스(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90%(12개월), 85%(18개월), 85%(24개월), 80%(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5.0%(연 5.0%)의 수익을 지급한다. /송태화 기자

“취임즉시 금투협 정상화... 규제완화·세제개선 추진”

신성호 전 IBK투자증권 사장 금투협회장 출마 선언

“어려움에 처한 협회가 다시 융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신성호 전 IBK투자증권 사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5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전 사장은 1965년 충남 논산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통계학 석사를 취득했다.

그는 1981년 삼보증권(대우증권 전신)에 입사해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 동부증권 리서치센터장, 우리선물(현 NH선물) 대표, IBK투자증권 대표를

두루 거친 ‘증권맨’이다.

지난 2008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1년여 동안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본부장, 경영전략본부장을 지낸 경력은 그의 강점이다.

신 전 사장은 “협회에 근무하면서 협회에 많은 정을 갖고 있다”면서 “취임즉시 인사와 조직제도를 정비해 협회를 곧 정상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협회 경영지원본부장 당시 증권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3개 노조 소통을 통해 위로금 지급 없이 6개월 만에 통합을 완료한 바 있다”면서 “협회 직원들이 당시에도 나를 많이 따랐기 때문에 직원들을 잘 이끌어 회원사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협회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증권업계 발전을 위해 크게 세 부분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제도 중 규제완화 ▲신사업부문 제도 관련 ▲세제개선 논의 관련 등이다.

신 전 사장은 “아직 정식 선거기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제도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명분과 논리를 정립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설득 대상자를 현장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투자협회장 후보자 접수 기한은 이달 4일 오전 10시까지다. 현재 신 전 사장과 함께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 정기승 KTB자산운용 부회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신성호 전 IBK투자증권 사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손엄지 기자

서울 신안산선·동북선 호재... 수도권 아파트시장 '관심'

인서울·더블역세권·신축 조건 갖춰 신안산선, 안산~여의도 25분 걸려 동북선, 상계~왕십리 환승없이 25분

서울 서남부와 동북부를 관통하는 신안산선과 동북선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노선의 영향권에 있는 단지들은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인(in) 서울', '더블 역세권', '신축'이란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시흥~광명~서울 구로디지털단지~영등포~여의도 등 총연장 44.7km, 15개 정거장으로, 2024년 완공시 안산에서 여의도가

지 25분이면 닿을 수 있어 이동시간이 약 50~75% 단축된다.

동북선은 상계~하계~미아사거리~고려대~제기동~왕십리 등 16개 정거장, 총 연장 13.4km다. 동북선이 완공되면 상계에서 왕십리까지 환승 없이 25분이면 도착 가능해 강북권 교통환경이 개선된다.

특히 지난 9월 신안산선 착공식이 열린 데다 동북선이 내년 초 착공을 앞두고면서 전철역 개통이 이미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강북권도 동북선 호재를 누리고 있다. 노원구, 성북구는 동북선 영향으로 신축 아파트 가격이 뛰고 있다. 특히 북서울 꿈의숲을 끼고 있는 월계로를 따라 동북선 정류장이 다수 정

차해 주변이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분양가 상한제로 서울 시내 역세권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고 있어 신철 철도 인근 아파트값은 더 오를 것”이라며 “연말과 내년 초 분양을 앞둔 신안산선, 동북선 인근 분양 단지 분양도 순조로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안산선과 동북선 수혜 지역 분양 단지로 신길뉴타운 3구역에서 포스코 건설이 이달 '더샵 파크프레스티지' 799가구 중 316가구를 일반공급한다. 신안산선이 점차 예정인 신흥역 뿐만 아니라 2022년까지 도보권에 신흥역 경전철(서울지방방무청역) 개통을 앞두고 있다.

동북선 인근에서는 한신공영이 강북구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으로 '꿈의숲 한신더휴' 203가구 55-84㎡ 117가구를 일반분양 중이다.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미아역을 걸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미아사거리역에 동북선 경전철이 점차 예정이다.

내년에는 장위뉴타운 4구역에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상태로 현재 이주 및 철거 마무리 단계에 있다. 시공사로 GS건설이 선정돼 총 2840가구를 공급한다. 길 건너 장위10구역도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1968가구의 아파트를 짓는다.

이르면 내년 초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두 단지는 6호선 돌곶이역 역세권 입지로 미아사거리역 등 북서울 꿈의숲 주변에 정착하는 동북선을 이용할 가능하다. /이규성 기자 peace@